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_[홀수형]기준

1.⑤	2.①	3.④	4.④	5.①	6.①	7.④	8.④	9.③	10.①
11.③	12.⑤	13.④	14.④	15.②	16.④	17.⑤	18.⑤	19.①	20.②
21.①	22.①	23.③	24.③	25.③	26.①	27.①	28.③	29.④	30.①
31.②	32.③	33.③	34.②	35.⑤	36.③	37.⑤	38.④	39.③	40.⑤
41.②	42.⑤	43.④	44.③	45.④	46.③	47.②	48.④	49.②	50.②

[1-5] 듣기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부족의 말하기 관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족에서는 사냥에 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주 큰 사냥감을 잡은 젊은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관습이 있다고 하네요. “전 사냥에 영 소질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 잡았어요.”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재미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뭔가 큰 걸 잡아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칭찬하고 치켜세우기보다는 겨우 그렇게 작은 것을 잡아 왔느냐고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는군요. 이러한 말하기 관습에서는 사냥에 성공한 젊은이가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거나 부족 사회에 동화되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사냥을 해 오지 못한 다른 젊은이들이 혹시 실망을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주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족의 말하기 관습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모두가 모두를 생각해 주는 지혜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요?

1. 추론적 사고(이야기의 교훈 추론)

정답해설 : 이 이야기에서 큰 사냥감을 잡은 젊은이는 자신의 성과를 축소하여 말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는 사냥에 성공한 젊은이가 시기와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젊은이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는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서로 배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큰 사냥감을 잡아 왔어도 겸손하게 표현하는 내용이므로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제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②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이야기에서 ‘타인의 성공을 받아야 한다’는 주제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③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모두가 모두를 생각해 주는’ 내용이므로 ‘인격 도야’, ‘수양’ 등의 개인적인 차원의 주제를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성공적인 사냥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것을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이끌어 내기는 적절하지 않다.

2.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겨울이 되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손발이 차가워지는 원인은 대개 혈액 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위 때문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때 피부 가까이에 분포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이어 주는 글로뮌이라는 관으로 피가 흐르면서 손발이 따뜻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즉 동맥에서 공급된 피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글로뮌을 통해 직접 정맥으로 흐르면서, 손발에 다시 따뜻한 피의 양이 늘어나 피부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글로뮌은 평소에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글로뮌이 열려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글로뮌이 딱딱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면 추울 때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발이 차가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글로뮌을 다른 말로 동정맥문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글로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과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2.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방송에서 글로뮌이라는 관은 피부 가까이에 분포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이어 주며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로뮌을 통과한 피는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흐른다’의 진술은 방송 내용과 어긋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동맥에서 공급된 피가 ~ 글로뮌을 통해 직접 정맥으로 흐르면서, 손발에 다시 따뜻한 피의 양이 늘어나 피부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죠.’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글로뮌이 열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피부 가까이에 분포해 동맥과 정맥을 직접 이어 주는 글로뮌이라는 관’과 ‘글로뮌을 다른 말로 동정맥문합이라고도 하는데요’의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글로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과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3. 다음은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딸 : 아빠, 여기가 우리 방이네요. 어, 문에 비상 대피도란 게 붙어 있어요.

아빠: 응, 비상시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이런 숙박 시설엔 객실마다 꼭 붙어 있지.

딸 : 아, 여기를 보세요. 별표가 지금 우리 방이네요.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건 비상구고, 비상시에 여기로 대피하라는 말이군요.

아빠: 응, 그렇지. 그럼 이번 기회에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알려줘야겠구나. 승강기는 화재 시에 아주 위험해서 이용하면 안 돼. 대신 비상구를 이용해야 하지. 1층에 별도로 설치된 비상문도 건물의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하는 거란다. 그리고 여기 이 완강기는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피난 기구인데, 3층부터 10층까지 이렇게 별도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도 피난 기구가 2층엔 없고 3층엔 있더구나.

딸 : 그렇군요. 음, 그런데 옥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빠: 아, 그땐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돼. 복도 유도등의 화살표는 비상구 쪽으로 돼 있고, 비상구 계단을 통해 옥상이나 지상으로 갈 수 있단다.

딸 : 아, 네. 여기엔 또 소화전의 위치도 나와 있네요. 불났을 때 물도 뿌리고 비상 상황도 알릴 수 있겠어요.

아빠: 응, 소화전이 보통 비상경보 장치와 함께 있어서 그런 건데, 여기도 그렇더구나. 층마다 설치돼 있어서 비상경보 장치의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면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려. 그리고 비상 대피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객실이든 휴게실이든 모든 방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과 소화기가 있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단다. 어때, 이제 좀 알겠니? 여행을 다닐 때는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걸 알아 두면 좋단다.

3.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딸’이 비상경보를 울리려면 비상경보의 발신기를 눌러야 하는데 문제의 그림에서는 발신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아빠’는 마지막 말에서 ‘소화전이 보통 비상경보 장치와 함께 있어서’라고 언급한 정보가 있는데, 이는 발신기의 위치가 소화전의 위치가 같음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그림에서 소화전은 객실의 복도 맞은 편 벽에 있으므로 ④는 적절한 행동 요령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강기’와 관련하여 ‘아빠’는 ‘승강기는 화재 시에 아주 위험해서 이용하면 안 돼. 대신 비상구를 이용해야 하지.’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화재 시 승강기를 이용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여기서 말하는 피난 기구는 ‘완강기’이다(‘이 완강기는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피난 기구인데’라고 한 ‘아빠’의 말). 또한 ‘아빠’는 ‘이 건물도 피난 기구가 2층엔 없고 3층엔 있더구나’라고 하였으므로, 2층 비상구 쪽 2층으로 간다고 해도 완강기를 이용할 수 없다. ③ ‘(옥상으로 대피할 땐)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돼’라는 ‘아빠’의 말에 따를 때, 옥상으로 가

기 위해 복도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객실이든 휴게실이든 모든 방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과 소화기가 있어서’라는 ‘아빠’의 말에 따를 때,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찾으려면 방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완강기의 위치가 복도의 끝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휴대용 조명등을 찾기 위해 완강기가 있는 쪽으로 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4 ~ 5. 다음은 토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얼마 전 우리 동네 주민 도서관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번 토의에 이어 이번 토의에서도 도서관 측과 이용자 측 발표자를 모시고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측 발표자:	현재 도서관 운영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자료를 열람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반 열람실은 물론 자료를 쉽게 보도록 서가 옆에 책상을 비치해 놓은 개가식 열람실까지도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방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 서가가 없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볼 수 있는 개가식 열람실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은 이용자 측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용자 측 발표자:	사실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보다는 지난번 토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는 주말에만 개가식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평일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면 개가식 열람실은 문을 닫은 상태죠.
사회자: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하면, 첫째는 공간 조정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둘째는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용자 측 발표자께서는 죄송하지만 개방 시간 연장은 이미 지난번 토의에서 예산과 인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는 공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용자 측 발표자:	네. 알겠습니다. 개방 시간 연장이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고 하니,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터

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자료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도서관 측 발표자: 글썄요. 개방 시간 연장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이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

4. 사실적 사고(중심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용자 측 발표자의 ‘중전 요구안’은 ‘개가식 열람실 개방 시간’을 늘려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이전의 요구를 접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 측 발표자가 자신의 중전 요구안을 고수하였다고 한 분석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서관 측 발표자의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라는 말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바탕으로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하자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② 이용자 측 발표자는 ‘평일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면 개가식 열람실은 문을 닫은 상태죠’라고 언급하여 평일에 방과 후 활동을 하느라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사회자는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하에서 논점을 정리하고 있고, ‘특별히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는 공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에서 이후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⑤ 도서관 측 발표자는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도 문제이고,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공이 쉽지 않습니다.’에서 이용자 측 발표자의 제안(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도서관 측 발표자는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 서가가 없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볼 때, ‘개가식 열람실의 좌석을 늘려 주세요’라는 건의 사항이 이번 토의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발표자 모두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③ 개인 사물을 둘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일반 열람실의 주말 개방 시간 연장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이용자 측 발표자가 제안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료 구입 신청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12] 쓰기, 어휘 · 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의도대로 작품이 창작되었는지 예상 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연상되기 위해서는 가야금 제작 과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야금 제작 과정에 관해서는 만드는 사람의 음감을 바탕으로 가야금의 음을 제작자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가야금이 잘 만들어졌는지 가야금 감상자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들을 줄 아는 귀’ 부분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연상할 수 있다. ③ 좋은 공명판이 될 만한 좋은 나무를 고르는 대목에서 좋은 글감의 선별을 연상할 수 있다. ④ 좋은 재료를 골라 잘 손질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글감을 잘 다듬어야 한다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다. ⑤ 각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그 자리를 잡아주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작품 요소들끼리의 긴밀한 짜임새를 연상할 수 있다.

7. 추론적 사고(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다)의 자료는 우리나라 중고생의 상당수가 인터넷을 하루에 2시간 이상 이용하고 그 중의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가)의 자료는 ‘리셋 증후군’이 과도한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와 혼동하는 증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적절하게 연결하여 활용한다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리셋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다)의 자료는 리셋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의 사례도 아니고 리셋 증후군의 대표적인 유형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가)의 후반부에 리셋 증후군의 세 가지 증상이 제시되어 있다. ② 자료 (나)에서는 리셋 증후군을 보이기도 하는 청소년이 가족과 여럿이 시간을 보내거나 스스로 컴퓨터 사용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리셋 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③ (나)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온라인 게임에 빠져 리셋 증후군을 보이기도 하며, (가)에 따르면 리셋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이 극단적인 일을 실제로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두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때 리셋 증후군이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다)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일상화와 온라인 게임 위주의 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나)에서는 지나친 컴퓨터 게임 이용이 리셋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하여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실태가 리셋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8. 창의적 사고 (개요 수정 및 보완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개요 II의 3에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중복’이라는 항목

이 있는데, Ⅲ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Ⅱ의 하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내용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한 검토 내용은 적절하며,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차별화’는 Ⅱ의 3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하위 항목의 대안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직업 체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증대’의 항목은 상위 항목인 ‘직업 체험 활동의 의의’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직업 체험 활동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바꾼 것도 상위 항목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② ‘진로 선택의 기준 제공’과 ‘직업과 관련한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유발’이 별개의 의의인데도 두 항목이 중복된다는 지적은 잘못되었고, 한 항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수정 방안도 잘못되었다. ③ ‘간접 체험 위주의 활동’, ‘학생들의 성적 미반영’,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중복’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직업 체험 활동의 수정 방안의 ‘과정’ 보다 기존의 ‘문제점’이 더 적절하다. ⑤ ㉠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한 검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

9.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과묵히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을’의 목적어 부분과 호응을 이루지 않으므로 ‘과묵게 되면’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③과 같이 ‘과묵히면’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가 불완전하게 해결되므로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폐휴대전화에 대한 문단이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에 관한 문장은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셋째 문단은 폐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물질을 재활용할 대상과 공해 유발 대상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이런 흐름을 고려하여 ㉡의 문장을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0.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원 활용은 두 배로, 환경오염은 반으로’에는 폐휴대전화의 양면성이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구가 아프지 않게’에는 지구를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이 활유법으로 표현했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독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문구는 ①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대구의 형식을 쓰지 않고 있다. ⑤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활유’의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11. 어휘·어법 (어휘의 의미 구별)

정답해설 : ㄱ~ㅅ에 쓰인 ‘들다’의 의미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ㄱ(‘감기가 들다’)의 ‘들다’ :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 ㄴ(‘가방을 들다’)의 ‘들다’ : 손에 가지다
- ㄷ(‘단풍이 들다’)의 ‘들다’ :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

- ㄹ(‘고개를 들다’)의 ‘들다’ :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 ㅁ(‘반기를 들다’)의 ‘들다’ : 뜻을 밖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
- ㅂ(‘보험을 들다’)의 ‘들다’ :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

위에 확인된 의미를 유사성의 기준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ㄱ, ㄷ, ㅂ의 ‘들다’는 ‘생기다’, ‘들어오다’의 의미로 묶이며, ㄴ, ㄹ, ㅁ의 ‘들다’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다’의 의미 요소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12. 어휘·어법 (한글 맞춤법의 사례 분석)

정답해설 :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로 적는 것은 <보기> 제5항의 ㉣에 따른 것이다. ‘깍두기’는 ㄱ 받침 뒤에서 [뚜]로 된소리가 나고 있는데 같거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서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것이다. ㉣의 ‘만사위’의 경우는 ‘만’과 ‘사위’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깍두기’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답] ⑤**

[13-16] 현대시

(가) 윤동주, ‘자화상’

작품해설 :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우물’은 거울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의 매개체이다. 그 속에 비친 자연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화자 자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화자는 자기 모습을 미워도 하고 가엾게 여기기도 하며 그리워하기도 한다. 자신에 대한 애증, 자기 연민이 교차하는 것이다. 미운 것은 식민지 공간에서 자신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때문이고, 가엾어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연민이며, 그리워지는 것은 순수하게 살던 옛날의 자기 모습을 떠올려서이다. 자신에 대한 이러한 갈등은 마지막 연에서 우물 속의 아름다운 배경을 묘사하고 그 곳에 ‘사나이’가 ‘추억처럼’ 있다고 하여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제] 자아 성찰과 자기에 대한 애증

(나)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작품해설 : 선제리 아낙네들이 군산 목은 장에서 채소를 팔고 돌아오는 밤길의 정경을 통해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의종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한밤중’ 같은 생활을 비관하기보다는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의종은 한세상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것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의종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

(다) 김명인, ‘그 나무’

작품해설 : 늦된 ‘그 나무’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부족하고 소외된 것에 대한 연민과 기대, 나아가 자아 성찰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의 시선은 만발한 벚꽃이 아니라 병들어 늦된 ‘그 나무’에 쏠려 있다. 활짝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주목받지 못할 외진 곳에서 아직도 ‘멍울’만 달고 있는 ‘그 나무’를 화자는 어딘가 안쓰러워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본다. 모두가 풍성하게 꽃 피우는 중에도 어느 곳에선가 모자라고 뒤쳐진 삶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대상에게도 마음을 써주는 화자의 마음이 따스하다. 그런 따사로운 시선으로 화자는 ‘그 나무’도 다른 나무처럼 꽃잎을 피우고 푸릇한 잎을 달고 여름 지나 가을에는 비록 풍성하지는 못해도 ‘가난한 소지’처럼 단풍으로 물들기를 기대한다. 소외된 것에 대해 갖는 애뜻한 연민이 마음의 공명을 울린다. 그런데 이 시에서 화자는 나무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늦깎이 깨달음’을 얻는 중이다. 단지 사물에 대한 연민에 머물지 않고 늦된 ‘그 나무’를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여 대상의 자기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나무’의 발견이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 늦된 것에서 느끼는 연민과 자아 성찰과 기대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그 사나이’(화자 자신)가 가엾어진다고 자기 연민을 보이고 있고, (나)에서는 요기도 못해 배고픈 아낙네들을 딱하게 여겨 ‘빈 광주리야 ~ 오죽 가벼울까’라고 연민을 드러냈으며, (다)에서 ‘늦된 그 나무’를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정답] ④**

14. 비판적 사고(작품 이해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추억처럼’이란 말은 동경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6연에서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연에서 추억과도 같은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 자아의 미운 모습과는 다른, 과거 속에서의 순수한 자아를 보는 것이다. 과거의 순수한 자아는 곧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연을 자신에 대한 화자의 존재 탐구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보다는 우물 속에 투영된 자신을 미워하고 가엾어하며 그리워해 온 이제까지의 내적 갈등이 6연에 이르러 우물이라는 모태와도 같은 공간 속에서 과거의 이상적 자아를 발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극복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는 1연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행위가 우물이라는 공간에 화자 자신의 내적 모습을 투영해 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② 2연에서 우물에 비친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한 세계를 상징한다. ③ 3~5연에 나타나 있는 ‘미워져 돌아갑니다 → 가엾어집니다 → 미워져 돌아갑니다 → 그리워집니다’라는 심경의 변화는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반응이므로 자아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에서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아낙네들의 말소리를 ‘짚어댄다’의 반복과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의 반복으로 병치해 놓음으로써 운율감이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②**

16. 추론적 사고(시어 및 시구에 대한 해석)

정답해설 : ‘산에서 내려 ~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부분은 화자가 ‘그 나무’를 정서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난만한 봄길’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젊은 시절의 혼돈이나 방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 나무’도 자신과 같이 미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늦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에 늦된 ‘그 나무’와 함께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곁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오릿길’은 군산 묵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말이다. 이 공간은 선제리 아낙네들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② 화자는 선제리 아낙네들이 서로 의종게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에 대해 ‘얼마나 의종은 한세상이더냐’라고 공감을 표하고 있다. ③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이라고 수식이 되어 있으므로 ㉔의 주체는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나무’이다. 따라서 ㉔은 ‘그 나무’가 꽃을 성화(성스러운 불)처럼 피우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대를 담은 시구로 볼 수 있다. ⑤ ‘늦깎이 깨달음’이라는 앞서의 시구와 관련하여 ‘소신공양’, ‘소지’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시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불타는 소신공양’은 만발한 벚꽃들의 가을 모습이고, ‘가난한 소지’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늦된 ‘그 나무’의 가을 모습이다. ‘그 나무’와 자신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7-20] 인문, ‘자산의 개혁’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간의 문제를 자연의 힘에 기대어 해결하려던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반으로 정책을 펼쳐나갔던 정나라 자산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산은 현실적인 문제를 자연의 원리에만 기대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여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 자산의 개혁은 현실의 곳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힘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역치(力治)로 이어져 결국에는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 등 새로운 폐단을 낳게 되었다.

[주제] 자산의 개혁이 지닌 특징과 결과

17. 사실적 사고(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세밀한 독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독해의 기본이 되는 문제로,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전체 내용을 이해하며, 선택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소들이 각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는 자산이 단행한 여러 가지 개혁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것이 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그것이 낳은 결과까지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자산이 추진한 개혁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②자산이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고,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다. ③자산은 귀족의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단행하였다. 백성의 개간을 허용하고,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다. ④자산의 개혁은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켰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 추론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자산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와 관련하여 백성과 귀족의 반응이 적절한지 판단해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반응의 초점이 백성과 귀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에 유의하며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자산은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켰고 형법을 성문화하여 법치의 체계를 세웠는데, 이는 귀족들의 임의적인 법 제정과 집행을 막아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족들은 자산의 개혁으로 인해 법과 관련된 자신들의 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치 전통을 세우고자 한 것은 오히려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자산의 정책이 지니고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족들이 임의로 법을 제정하여 집행하던 일을 막고 형법이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전보다는 일관성이 있는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법이 성문화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려면 글을 알아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③자산의 정책은 귀족들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즉 백성들이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리고 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를 정착시킨 것이다. ④귀족들만 독점하던 토지가 백성들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귀족에게 집중되었던 경제적 특권이 약화되고 백성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귀족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된다는 걱정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19.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라 중심 내용 비판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노자 사상의 특징을 언급한 것으로, 통치자들의 무위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으로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산의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자산의 정책은 자연의 원리에 인간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분히 인위적인 성질이 강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산의 정책은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취 등의 폐단을 낳은 정책일 뿐인 것이다. 이는 곧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게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자연이 인간의 화복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자산이 생각한 것은 맞지만, <보기>에서도 자연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현실주의적 개혁이 백성들에게 안정이나 혜택을 가져온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폐단을 낳았다. ④사회 제도에 의거한 인위적인 개혁은 인간 생활에 많은 폐단을 가져온다는 것이 <보기>의 관점이다.

20.어휘어법(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집정’은 ‘정치상의 사무를 잡는 일, 혹은 그런 관직이나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집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군주가 직접 통치할 수 없을 때에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화’는 ‘재앙’을 의미하고, ‘복’은 ‘복되고 영화로운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재앙과 복을 아우르는 말이다. ③ ‘개간’은 ‘황무지를 개간하다’의 형태로 많이 쓰는 말로서,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을 일구어 논밭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위상’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자’ 등의 예로 활용되는 단어로서,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대상이 가지는 위치나 상태를 의미한다. ⑤‘농후’의 ‘농’은 ‘질은 정도’를 나타내고, ‘후’는 ‘두텁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이는 ‘어떤 경향이나 기색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21-24] 예술, ‘미학이론으로 본 뮤지컬’

지문해설 : 이 글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을 소개하면서 두 이론을 적용하여 뮤지컬을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즉,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체계 이론 미학’은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본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을 뮤지컬에 적용하면,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캐츠>와 같은 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식적 요소만으로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레뷰로서의 뮤지컬’도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주제]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이론 미학을 적용해 본 뮤지컬

21. 사실적 사고(핵심 개념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파악하고, ‘체계 이론 미학’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파악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참된 예술로 파악하고,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받아들인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으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③ 본문에서는 ㉠과 ㉡ 두 이론을 모두 뮤지컬이라는 예술 장르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이 여전히 지지를 받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22. 추론적 사고(사례 분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뮤지컬을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것이 ‘최근의 관점’이다.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내용의 충실한 전달보다는 기발한 무대,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가 중시된다. 따라서 이같은 관점에서 <캐츠>를 감상하고 있는 것은, 원작에 상관없이 춤과 노래가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본 ㉠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작품의 주제 구현을 중시하고 있다. ③ 노래의 가사를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용적인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④ 조명과 의상과 같은 형식적인 요소를 원작의 주제와 연관 지어 감상하고 있다. ⑤인간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 것 역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감상한 것이다.

23.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는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이고,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고 했으므로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이 모두 조화를 이룬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는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는 ‘지적·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되는 경향을 띠었다고 했으므로,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된 ‘체계이론 미학’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㉔는 ‘미적 유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24. 어휘·어법(대체할 수 있는 어휘 판단)

정답해설 : 문맥상 ㉔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를 찾는 문제이다. ㉔는 소홀하게 보아 넘김의 의미를 지닌 등한시(等閑視)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떨시’는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의 의미이다. ② ‘천시’는 업신여겨 낮게 보거나 천하게 여김의 의미이다. ④ ‘문제시’는 논의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⑤ ‘이단시’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 권위 등에 반항함의 의미를 지닌다.

[25-26] 기술, ‘컴퓨터의 여러 가지 자료 구조’

지문해설 :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 사용되는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해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두 자료 구조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연결 리스트’에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 ‘배열’은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저장 순서가 일치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알면 읽기와 쓰기가 간단하지만 자료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하는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다. 하지만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는 점이 단점이다.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는 ‘이중 연결 리스트’는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주제] 자료 구조의 종류에 따른 자료 처리 방식의 장단점

2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연결 리스트’이다. ‘배열’은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포인터’는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가진 저장소가 실제 컴퓨터 메모리에 구현된 위치를 의미한다. ② ‘배열’은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두 구조의 자료 접근 방식은 다르다. ④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로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다. ⑤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 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기 때문에 한 저장소에 세 가지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26.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실험은 동일 수의 자료를 논리순이 유지되도록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읽기, 삽입, 삭제를 동일 횟수만큼 차례로 실행하는 것이다. ‘배열’은 자료를 삽입, 삭제할 때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삭제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에 비해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이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 왜냐하면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기 때문이다. ㉢ ㉣은 자료의 삽입이 ㉠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에 ㉠에 비해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짧다. ㉣ ㉤은 ㉣에 비해 저장 실험의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 ㉤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은 ㉣에 비해 읽기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지 않다.

[27-31] 시가수필복합

(가) 정극인, ‘상춘곡’

작품해설 : 작가가 관직으로부터 물러나 고향인 태인의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된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이상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安貧樂道)

(나) 김광옥, ‘율리유품’

작품해설 : 작자가 만년에 고향에 돌아가 지은 연시조(17수)로,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잊고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내용을 읊고 있다.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화자가 소박하지만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맛을 노래하며, 현실 정치에 대해 풍자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주제]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전원생활의 여유와 풍류

(다)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

작품해설 : 박규수가 중국 북송의 명신 범중엄(范仲淹)이 늙어서 저택을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한 사언을 바탕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을 펼친 글로,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 글을 썼다. 여기에는 당시 조선의 현실이 깊이 투영되어 있다. 당시에는 서울 주변의 경관이 좋은 곳에 사대부들이 경쟁

적으로 저택과 정원을 꾸미고, 서로를 비교하여 평가하려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풍경이 좋고 나쁜 것도 주관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한 구경거리나 미적 기준이 있지는 않다고 본다. 즐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제 소유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떠한 풍경이든지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풍경이란 것은 철따라 장소 따라 변화하여 일정함이 없으며, 풍경을 보는 사람의 시선과 감정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남의 평가에 따라 풍경을 볼 필요 없이 제 느낌에 따라 보면 된다는 것이다.

[주제] 풍경을 소유하려 드는 세태 비판

27. 비판적 사고(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는 ‘물아일체여니 흥이야 다를쏘냐.’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나)에서는 3수의 ‘이 몸이 이 청흥을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각각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28. 추론적 사고(관점의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수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풍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기’를 탐하는 ‘백구’는 권력을 탐하는 속된 정치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㉔은 자연을 즐기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④, ⑤ ㉔은 소유하지 않고 자연을 즐기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산림에 묻혀 지락을 아는 것’,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나)에서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즐기는 것’, ‘(벼슬살이의)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등은 모두 세속적 소유를 거부하고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 범희문의 가치관과 통한다.

29. 추론적 사고(작품 간의 표현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에는 꽃 피고 새 우는 봄의 정경 속에서 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어 흥겨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반해 [C]에는 눈이 녹아 푸른색을 되찾아가는 봄의 풍경과 달리 늙음을 탄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 서글프게 느껴진다. [정답] ④

30. 추론적 사고(태도의 추리)

정답해설 : [B] 부분에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생활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양반 사대부이기는 하나 물질적인 풍요와는 거리가 먼 화자의 조촐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31. 추론적 사고(태도의 추리)

정답해설 : ㉔은 자연을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며

소유하려는 사람의 태도이다. ②는 그와 같이 고정된 견해를 갖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의 경치를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연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③ 자연에 대해 고정된 견해를 가지고 강요하는 예이다. ④, 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연을 다른 것과 비교하여 바라보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36]과학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지문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율리우스력과 대비하여 그레고리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레고리력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과 특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레고리력의 제정은 제정 당시로서는 역법 개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그레고리력이 정확성을 기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주제] 그레고리력의 제정 경위와 특성

32.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일치 · 불일치 파악)

정답해설 :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라는 구절에 주목하면 릴리우스는 교회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하였음을,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교황청은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게 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여 한 번에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의 10일의 오차를 수정하였다. ② 부활절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함에 따라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함으로 인해 그레고리력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릴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고,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 ④ 릴리우스는 춘분 때의 지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두었다. 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제정되었다.

33. 추론적 사고(적절한 반응 추리)

정답해설 : 태양력, 즉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마련한 릴리우스는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인 항성년과,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인 회귀년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정확한 역법을 만들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서는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했으며, 음력에서는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②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에서는 태양의 운동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하고자 했고, 음력은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다. ④ 그레고리력의 1년은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365일 5시간 49분 16초)을 채택한 것인데, 이는 보름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삼은 음력의 열두 달(354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윤달이 첨가된 태음태양력의 윤년은 1년이 354일인 평년에 한 달을 추가한 것이고 율리우스력의 윤년은 366일이다.

34. 사실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보다 후대에 나타났는데,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한 것이며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고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이 되므로 1700년은 평년이 되고, ㉡에서는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기에 1700년은 윤년이 된다. ③ ㉠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윤년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이 되므로 4의 배수인 해는 윤년이 되는 ㉡보다 윤년이 자주 돌아온다고 말할 수 없다. ④ ㉠은 ㉡보다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다. ⑤ ㉠이 ㉡보다 나중에 제정되었으며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35. 창의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식당 중심은 태양에 대응하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도는 철수는 지구에 대응한다. 철수가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에서 출발하여 다시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항성년에 대응한다. 폭포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는 항성에 대응하는데, 태양과 지구와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항성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서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이 회귀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철수가 원래의 식탁에서 출발하여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에 대응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②③④ ㉠가 지구, ㉡가 회귀년, ㉢가 항성년에 대응한다는 사실에 위배된다.

36. 어휘(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라는 문장의 ‘으로’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조사로 사용되었다. ②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④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⑤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37~39] “원래 비통사적 합성어였던 ‘두더지’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두더지’의 예를 들어 옛날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는 단일어처럼 인식되어 그러한 원래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힘든 단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더지’가 옛날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였음에 착안하여,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인 비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통사적 합성어와의 대비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언어 변화로 인한 단어 구성 방식 파악의 난점

37. 사실적 사고(내용 일치 · 불일치 파악)

정답해설 :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였지만 현재에는 단일어로 여겨져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두디다’ > ‘뒤지다’와 같은 그동안의 언어 변화로 인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본래 합성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단일어로 여겨진다. ② 합성어 유형 구분의 기준은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③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른 것은 통사적 합성어이고,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구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견주어 볼 때 차이가 드러난다.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의 어간은 ‘ㄷㅌㅅ-’인데, ‘ㄷㅌㅅ>숫’의 형태 변화로 인해 아예 소멸되었다.

38. 비판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거우루엣’의 ‘엣’은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능이 오늘날의 ‘에’에 대응하지는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귀엣’은 ‘귀(명사)+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로 분석되며, ‘거우루엣’은 ‘거우루(명사)+에(부사격 조사)+ㅅ(관형격 조사)’로 분석된다. ② <보기>에서 ‘제’는 생략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거우루엣’과 ‘그르멜’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루었는데 ‘거우루엣’은 ‘귀엣’과 유사한 구성이고 <보기>의 ‘그르메’와 ③의 ‘말’은 모두 명사이므로 ‘귀엣’과 ‘말’ 사이에도 다른 말이 들어가 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다. ⑤ 지문에 의하면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곧 비통사적 합성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귀엣말’은 ①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기>에서 ‘거우루엣(제) 그르멜’과 같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 ‘귀엣’과 ‘거우루엣’이 그 짜임새가 같다는 것을 고려하면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합성어였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39. 창의적 사고(새로운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㉔는 ‘오르-’라는 용언 어간과 ‘내리-’라는 용언 어간의 결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오르내리다’라는 합성어로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읽다’와 ‘갈무리하다’가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면 ‘읽갈무리하다’가 된다. **[정답] ㉓**

[오답 피하기] ㉑ ‘가락’이라는 체언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㉒ ‘빠빠한’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과 ‘연필’이라는 체언이 결합한 것이다. ㉔ ‘부드럽-’이라는 용언 어간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㉕ ‘새콤달콤’이라는,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에 ‘국수’라는 체언이 직접 결합한 것이다.

[40-43] 현대소설 - 이호철, ‘나상(裸像)’

작품해설 : 1956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북한군의 포로로 되어 만난 형제가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소설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

40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은 형제가 포로로 이송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제시된 소설에서 ‘형’은 천진난만한 순수함을 지닌 인물로 동생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우는 동생을 나무라면서 본인이 운다든가, 동생 귀에 속삭이는 행위, 동생의 허리나 허벅다리를 쿡쿡 찌르는 행위 등을 반복 서술하면서 ‘형’의 성격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는 내용은 유추할 수 없다. ㉒ 내적 독백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대화가 위주이다. ㉓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은 등장하지 않는다. ㉔ 간접인용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대화 내용이 직접 서술되어 있다.

41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에서는 형과 동생의 갈등 구도라든가 갈등 양상이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형은 동생을 기특하게 여기고 동생 역시 형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답] ㉒

[오답피하기] ㉑ 눈이 흘날리는 것을 보며 울음을 그치고 ‘눈이 내린다.’라며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눈’은 형에게 동심을 불러일으킨 매개체라 할 수 있다. ㉓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라고 하여, 황량하고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㉔ 형의 걸음이 자꾸 처지는 것은 형의 ‘담증’ 때문이고, 그로 인해 형은 경비병의 따발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㉕ 형이 죽게 되는 시점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것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추론적 사고(개별 서사 요소의 의미 추론)

정답해설 : 동생은 자신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형의 마음을 차츰 깨닫게 된다. 아파하는 형의 모습에 동생은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따라서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은 글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③ 춤다면서 동생을 끌어안는 형에게,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④ 아파하는 형을 바라보지만 아무 것도 해 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이므로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

43.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이 소설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그리고 있다. ‘형’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동심을 잃지 않는다. 또한 포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등의 행동을 않는다. 따라서 형은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해 어떠한 저항의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보기>에서 ‘형’은 천진난만한 ‘별거숭이 인간’으로, 근원적인 인간성을 지닌 인물로 보고 있다. ②‘경비병’은 형제를 구속하는 존재이므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대한 상징이라 볼 수 있다. ⑤ 제시된 소설은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44-46] 사회, ‘채권 가격의 결정 요인’

지문해설 :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권 투자자는 순수익의 크기를 따져 채권을 매입하는데,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도 떨어지게 된다. 채권 가격은 만기와 지급 불능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다.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 위험이 크다. 이렇듯 위험 요인이 크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이 상승하면 채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 등의 다른 시장 상황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주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44. 비판적 사고(서술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채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의 여러 요인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금리가 채권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채권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채’, ‘회사채’ 등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이는 지급 불능 위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자들은 지급 불능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만큼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구입해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채권의 현재 가치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은 채권의 액면 금액이 아니다. ② 채권의 순수익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이다. ③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다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⑤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순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을 수 있다.

46. 추론적 사고(그래프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져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보기>의 그래프는 이러한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에서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고 하고 있다. 이는 채권 가격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으로 그래프에 적용하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기울기가 작아진 것은 ㉠이다. ㉡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있다. ㉢의 경우 채권 가격이 A보다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다. **[정답] ③**

[47-50]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운영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신분적인 제약이 심했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신분적인 제

약이라는 거대한 장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다. 죽은 김 진사와 운영이 선비 유영에게 나타나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액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으로, 금지된 사랑이 싹트고, 지속되고, 결국에는 발각되어 불행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고전 소설의 특징인 ‘행복한 결말(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점에서 독특한 작품이다. 제시된 본문은 두 사람의 사랑에 반동 인물로 작용하는 ‘특’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과 장애

4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특은 김 진사의 부탁으로 운영의 재물을 운용하는 인물인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간계를 꾸미고 있다. 도둑을 만났다는 것도 특이 지어낸 거짓말일 뿐이며, 특이 맹인에게 말한 것은 도둑이 버리고간 물건을 자신이 주웠을 뿐이며, 그것에 대해 김 진사가 욕심을 부린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들이다.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사는 도둑을 만나 재물을 뺏겼다는 특의 말을 믿었으나 그것이 특의 소행임을 알고 뒤늦게야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특의 집을 수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③‘맹인의 이웃’이 특으로부터 들은 김 진사의 악행에 관한 이야기는 궁중으로까지 전파되어 대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④대군은 김 진사와 관련된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하였고 서궁의 궁녀들을 형장에 세웠다. ⑤은섬은 대군의 처사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궁녀를 원망하거나 하는 태도는 드러내고 있지 않다.

48. 추론적 사고(특정 제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궁궐의 담’은 궁녀의 생활 환경을 규정지을 뿐 아니라, 궁녀로서의 삶과 일반인으로서의 생활의 경계를 이루는 제재이다. 궁궐의 담 안쪽에서 살아가는 궁녀들은 대군의 영향 아래 궁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궁녀로서의 신분에 벗어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는 곧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의 경계라고 할 수 없다. 그 경계를 통해 위선과 진실의 특징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드러나는 장면은 없기 때문이다. ②물질적인 문제는 담 밖에 있는 특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궁궐의 담 안쪽을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은섬의 말로 보아 담 안의 궁녀들이라고 해서 담 밖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제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뿐이다. ⑤김 진사와 특의 관계로 볼 때, 담 밖에도 신분적 위계는 존재하고 있다.

49. 추론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운영전’이 운영과 김 진사의 목소리로 서술되는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이런 특징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유형이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에 반동적인 인물로 작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게 서술하게 된다는 점에 의해 작품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맹인의 태도로 인해 주인공의 사랑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특의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역경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운영이 김 진사를 사랑하게 된 것도 궁녀라는 신분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엄연히 ‘대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인공은 특의 배신만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특이 남몰래 웃음을 짓는다는 것을 통해 특의 간교함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이는 주인공이 특의 부정적 면모에 초점을 맞춰 지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④ 대군은 궁녀들의 주군으로, 궁녀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간 대군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궁녀들을 벌하고자 하는 대군에 대해서도 궁녀들은 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⑤궁녀들은 신분적 제약을 받는 몸이라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는 처지임이 은섬의 말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곧 운영의 사랑이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0. 추론적 사고(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은 특이 거짓으로 도둑을 만나 죽을 뻔하였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매우 급박하고 긴장되었던 순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순간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금방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채경각’이 가장 적절하다. 즉, 특은 김 진사에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겨우 도망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내우외환(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걱정과 근심들을 이룸. ③사고무친(四顧無親):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음을 이룸. ④오리무중(五里霧中): 오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어 방향을 알 수 없음과 같이, 무슨 일에 대해 알 길이 없음의 비유. ⑤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을 이룸.